

어셔가의 몰락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839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Edgar Allan Poe,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 (1839)

저자

에드거 앨런 포 (Edgar Allan Poe, 1809-1849)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148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5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매달린 류트와 같아서, 건드리기만 해도 울려 퍼진다.

—베랑제.

가을의 어느 지루하고 어둡고 고요한 날이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말을 타고 홀로 유난히도 황량한 벌판을 지나고 있었다. 저녁의 그림자가 드리울 무렵, 마침내 눈앞에 우울한 어서가가 나타났다.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건물을 처음 본 순간, 견딜 수 없는 우울함이 내 영혼을 잠식했다. '견딜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보통 사람이 황량하거나 무시무시한 자연의 풍경을 마주할 때 느끼는 그 미묘하고도 시적인 즐거움이 이번에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저 집 한 채와 그 영지의 단순한 지형들, 황량한 벽들, 눈동자처럼 텅 빈 창문들, 무성하게 자란 몇 줄기 사초, 그리고 하얗게 썩어버린 고사목들을 보았다. 그때 느낀 영혼의 침울함은 세상의 그 어떤 감각과도 비교하기 어려웠다. 굳이 비유하자면, 아편에 취했던 자가 꿈에서 깨어날 때 겪는 뒤숭숭한 잔상, 즉 비참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며 가려져 있던 베일이 흉측하게 벗겨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심장이 얼어붙고 가라앉으며 메스꺼워졌다.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 억지로 미화하려 해도, 그저 구제할 길 없는 우울함일 뿐 숭고함으로 승화되지 않는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했다. 어서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왜 이토록 마음이 허물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고민하면 할수록 정체 모를 환영들이 몰려와 나를 괴롭혔고, 나는 그 실체를 붙잡을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아주 단순한 자연물들이 결합하여 인간에게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힘이 작용하는 원리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영역에 있다는 결론이었다.

어쩌면 풍경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조금만 다르게 배치했더라도, 이 슬픈 인상을 완화하거나 혹은 완전히 없앨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 생각에 따라 말을 몰아 저택 옆에 잔잔하게 빛나고 있는 검고 탁한 연못의 가파른 가장자리로 향했다. 그리고 연못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회색 사초와 소름 끼치는 나무줄기, 그리고 눈동자처럼 텅 빈 창문들이 뒤집힌 채 비치고 있었다. 나는 이전보다 더 강렬한 전율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음울한 저택에서 몇 주간 머물기로 마음먹었다. 저택의 주인인 로더릭 어서는 어린 시절 나의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지도 이미 수년이 흘러 있었다. 그러던 중, 내가 지방의 먼 곳에 머물고 있을 때 그에게서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다. 편지의 내용은 무척이나 절박하고 간곡해서, 직접 찾아가는 것 외에는 달리 답할 방법이 없었다.

친필로 쓰인 편지에서는 필자의 불안한 심리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는 몸이 몹시 아프고 정신적인 질환까지 앓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장 친한, 아니 유일한 친구인 나를 꼭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전해왔다. 나의 밝은 기운이 곁에 있어 준다면 자신의 병세를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였다.

이 모든 내용과 그 이상의 호소, 그리고 무엇보다 간곡한 요청에 담긴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읽고 나니 나는 망설임 여지가 없었다. 나는 여전히 매우 기이하게 느껴지는 그 부름에 응하여 즉시 길을 떠났다.

어린 시절 우리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지만, 사실 나는 내 친구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는 언제나 지나칠 정도로 과묵했고, 그것이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다. 다만 나는 그의 가문이 아주 오래전부터 독특한 기질을 지닌 것으로 유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기질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고결한 예술 작품을 통해 드러났으며, 최근에는 남몰래 베푸는 관대한 자선 활동과 음악학의 복잡한 심오함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으로도 나타났다. 아마도 그는 정통적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아름다움보다는 음악의 복잡한 원리에 더 몰두했던 듯하다.

또한 나는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고 있었다. 어서 가문은 유서 깊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단 한 번도 지속적인 방계 혈족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가문의 모든 구성원이 직계 혈통으로만 이어져 왔으며, 아주 미미하고 일시적인 변동을 제외하면 늘 그러했다는 뜻이다.

나는 저택의 분위기가 그 가문의 명성만큼이나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떠올리며, 수 세기라는 긴 시간 동안 저택이 가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즉 방계 혈족의 부재로 인해 가문의 이름과 유산이 부친에서 아들에게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점이 결국 가문과 저택을 하나로 묶어버렸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저택의 원래 명칭은 '어서가'라는 기묘하고도 모호한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이 이름을 사용하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서가'라는 말은 가문과 저택을 동시에 의미하는 듯 보였다.

내 다소 어린애 같은 실험, 즉 저 연못 속을 들여다본 행위가 가져온 유일한 결과는 처음에 느꼈던 그 기이한 인상을 더욱 깊게 만든 것뿐이라고 앞서 말했다. 미신적인 공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자각이, 역설적이게도 그 공포를 더욱 부채질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 내가 이를 미신이라 부르지 않겠는가? 공포를 근간으로 하는 모든 감정은 이처럼 역설적인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연못에 비친 저택의 형상에서 눈을 떼어 다시 저택 자체를 올려다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는 기묘한 망상이 피어올랐다. 그 망상은 실로 터무니없는 것이어서, 당시 나를 짓누르던 감각이 얼마나 생생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겨우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겠다. 나는 상상력이 지나치게 자극된 나머지, 저 저택과 그 영지 전체에 그곳만의 독특한 대기가 감돌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그 대기는 하늘의 공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썩어가는 나무들과 회색빛 벽, 그리고 고

요한 연못에서부터 피어오른 듯한, 불길하고 신비로운 증기였다. 그 증기는 탁하고 느릿하며 희미하게 식별되는 납빛의 안개였다.

꿈이었음이 틀림없는 그 기묘한 느낌을 떨쳐내고, 나는 건물의 실체를 더욱 면밀히 살폈다. 건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나칠 정도로 오래되어 보인다는 점이었다. 세월의 풍파를 맞은 흔적이 역력했다. 처마 밑에는 미세한 곰팡이들이 엉킨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그물을 이루며 외벽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을 보면서도 건물이 유별나게 허물어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석조 구조물 중 무너져 내린 곳은 없었다. 각 부분이 여전히 완벽하게 맞물려 있는 모습과, 개별 돌들이 부스러져 가는 상태 사이에는 기묘한 불일치가 느껴졌다. 이는 마치 외부의 공기 한 점 닿지 않는 어느 방치된 지하 저장고에서, 수년간 썩어 문드러진 오래된 목재 구조물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것과 흡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부식의 흔적을 제외하면, 건물 자체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보이지 않았다. 아마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건물의 정면 지붕에서 시작해 벽을 따라 지그재그로 내려가다가 침울한 빛을 띠는 저 연못의 물속으로 사라지는, 아주 미세한 균열 하나를 찾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정황을 살핀 나는 짧은 제방 길을 지나 저택으로 말을 몰았다. 대기하던 하인이 내 말을 받아 갔고, 나는 홀의 고딕 양식 아치형 입구로 들어섰다. 그러자 발소리를 죽인 집사가 나타나 나를 안내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둡고 복잡하게 얽힌 여러 통로를 지나, 주인의 작업실로 나를 이끌었다. 가는 길에 마주친 수많은 것들이 앞서 말한 그 막연한 감정을 어떻게 증폭시켰는지, 나조차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천

장의 조각 장식, 벽에 걸린 어두운 태피스트리, 칙흑처럼 검은 바닥, 그리고 내가 걸을 때마다 달그락거리며 흔들리는 기괴한 문장 장식들까지, 주변의 모든 사물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익히 보아온 것들이었다. 이 모든 풍경이 내게 얼마나 친숙한지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평범한 사물들이 내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환상만큼은 도무지 낮설고 기이하여 나는 경탄할 수밖에 없었다. 계단 중 하나에서 나는 가문의 주치의를 만났다. 그의 얼굴에는 교활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기색으로 내게 인사를 건네고는 서둘러 지나갔다. 그때 집사가 문을 활짝 열었고, 나는 주인이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내가 들어선 방은 매우 넓고 층고가 높았다. 창문은 길고 좁은 형태에 끝이 뾰족했는데, 검은 참나무 바닥에서 너무나 높이 달려 있어 안에서는 도저히 손을 뻗을 수 없을 정도였다. 격자무늬 창을 통해 스며든 희미하고 붉은 빛이 방 안의 주요 사물들을 겨우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돌려봐도 방의 구석진 곳이나, 무늬가 새겨진 아치형 천장의 움푹 들어간 곳까지는 시선이 닿지 않았다.

벽에는 어두운 색의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가구들은 무수히 많았으나, 하나같이 안락함이라곤 없이 낡고 해져 있었다. 수많은 책과 악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지는 못했다. 나는 슬픔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엄숙하고 깊으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암울한 기운이 방 안의 모든 곳을 짓누르고 있었다.

내가 안으로 들어서자, 소파에 길게 누워 있던 어서가 몸을 일으켰다. 그는 나를 아주 활기차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지나치게 친절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마치 권태에 찌든 세상 물정 밝은 신사가 억지로 상냥함을 짜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슬쩍 살펴보니, 그 환대는 진심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잠시 동안 그가 입을 열지 않는 사이, 나는 연민과 경외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으로 그를 응시했다. 로더릭 어서가 이토록 짧은 시간 동안 이토록 처참하게 변할 수 있다니,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었다. 내 어린 시절의 동무가 눈앞에 있는 이 창백한 존재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조차 어려웠다.

물론 그의 얼굴은 예전부터 범상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시체처럼 창백한 안색,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축축하며 빛나는 눈, 다소 얇고 매우 창백하지만 곡선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입술, 섬세한 히브리인의 형상을 닮았으나 콧망울은 유난히 넓은 코, 그리고 도드라지지 않아 도덕적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매끄러운 턱선, 거미줄보다 더 부드럽고 가느다란 머리카락까지. 관자놀이 윗부분이 유난히 넓게 발달한 이 이목구비들은 한 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특징들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었고, 평소 짓던 표정마저 완전히 달라져 있어서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무엇보다도 소름 끼칠 정도로 창백해진 피부와 기이할 정도로 번뜩이는 눈빛이 나를 놀라게 했고, 심지어 경외감마저 느끼게 했다. 비단 같은 머리카락 또한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제멋대로

자라 있었다. 거미줄처럼 가늘고 제멋대로 형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 주변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허공에 붕 떠 있는 모습은, 아무리 애써 보아도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기괴한 환상 속의 존재처럼 보였다.

내 친구의 평소 모습과 비교해 볼 때, 그의 말은 즉시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었다. 곧이어 나는 그 이유를 깨달았다. 그는 습관적인 불안감과 과도한 신경질적 동요를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으나, 그 시도는 무력하고 헛된 몸부림에 불과했다. 사실 나는 그가 이런 상태일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가 보낸 편지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의 몇몇 특징을 떠올려 보았고, 그의 특이한 체격과 기질을 통해 내린 결론 때문이기도 했다.

그의 행동은 활기차다가도 금세 침울해지기를 반복했다. 목소리 또한 변화가 심했다. 생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듯할 때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아주 힘 있고 간결한 어조로 바뀌었다. 그것은 갑작스러우면서도 무게감이 느껴졌고,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울림이 깊은 발음이었다. 마치 삶을 포기한 술꾼이나 구제 불능의 아편 중독자가 극도로 흥분했을 때 내뿜는, 납처럼 무겁고 평온하며 완벽하게 조절된 듯한 그 특유의 목소리와도 같았다.

그는 내가 이곳을 방문한 목적과 자신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마음, 그리고 내가 자신에게 줄 수 있을 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바를 길게 늘어놓았다. 그는 이 병이 체질적인 문제이자 가문의 내력이라며, 치료법을

찾기를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덧붙였다. 그저 단순한 신경 질환일 뿐이며, 분명 곧 지나갈 것이라고 말이다.

병은 온갖 비정상적인 감각의 변화로 나타났다. 그가 상세히 설명하는 증상들을 들으며 나는 흥미를 느끼는 동시에 당혹감에 빠지기도 했다. 어쩌면 그가 사용하는 용어나 전반적인 서술 방식이 나에게 그런 느낌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감각이 병적으로 예민해져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아주 싱거운 음식만이 겨우 견딜 만한 수준이었고, 옷감의 질감도 특정한 것만 입을 수 있었다. 모든 꽃의 향기는 그를 압도하며 괴롭혔고, 희미한 빛조차 그의 눈을 고통스럽게 했다. 오직 현악기에서 흘러나오는 특정한 소리만이 그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기이한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죽을 것ियो. 이 비참한 어리석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소. 반드시 이렇게,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파멸하게 될 것ियो. 나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이 불러올 결과가 두렵소.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내 영혼을 이토록 참을 수 없는 동요 속으로 몰아넣을까 봐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오. 사실 나는 위험 그 자체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가져올 절대적인 결과, 즉 공포를 혐오하는 것이오. 이렇게 기력을 잃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으니, 머지않아 삶과 이성을 모두 내던져야 할 때가 올 것만 같소. 저 잔혹한 환영, 즉 ‘공포’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말이오.”

게다가 나는 간간이, 그리고 그가 흘리는 불분명하고 모호한 암시를 통해 그의 정신 상태에 관한 또 다른 기이한 특징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머무는 저택에 대해 어떤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수년 동안 그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만큼 그 공포에 얽매어 있었다. 그가 말하는 그 영향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여기서 차마 다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모호했다. 다만 그는 가문의 저택이 지닌 형태와 구조의 특이함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신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회색 벽과 침탑들, 그리고 그 모든 건물이 내려다 보는 어두운 연못의 외형이 결국 그의 삶의 정신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만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머뭇거리면서도 한 가지 사실을 인정했다. 자신을 괴롭히는 그 기묘한 우울함의 원인이 사실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명백한 곳에 있다는 점이였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지독한 병환, 아니, 이제 곧 죽음에 이를 것이 분명한 사랑하는 누이의 병세 때문이었다. 그녀는 오랜 세월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으며, 이 세상에 남은 그의 마지막 혈육이었다.

"누이가 죽고 나면," 그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비통한 어조로 말했다. "희망도 없고 유약하기만 한 나, 즉 어서 가문의 마지막 후손은 홀로 남게 되겠지."

그가 말을 이어가는 사이, 매들린 영애(그녀는 그렇게 불렸다)가 방 저편의 외진 곳을 가로질러 천천히 지나갔다. 그녀는 내가 있는 것을 알아채지도 못한 채 사라졌다. 나는 공포가 뒤섞인 극도의 경악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다. 멀어져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는 동안, 나는 멍한 기분에 휩싸여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문이 닫히자, 나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그의 얼굴을 살폈다. 하지만 그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그저 수많은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의 수척한 손가락이 평소보다 훨씬 더 창백해져 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매들린 영애의 병세는 오랫동안 의사들의 능력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만성적인 무기력증, 신체가 서서히 말라가는 증상, 그리고 간헐적이지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적 강직 증세가 그녀의 특이한 진단 명이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병마의 압박을 곳곳이 견뎌내며 완전히 자리에 눕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저택에 도착한 날 저녁, 그녀는 결국 파괴적인 병마의 힘에 굴복하고 말았다. 밤중에 오빠가 형언할 수 없는 불안함에 휩싸여 내게 전한 말에 따르면 그러했다. 나는 내가 잠시나마 보았던 그녀의 모습이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적어도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어서나 나 중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친구의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다. 때로는 그가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걱정적인 기타 선율을 마치 꿈을 꾸듯 멍하니 듣기도 했다.

우리의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나는 그의 내면 깊은 곳을 더 가감 없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무력감만을 느꼈다. 어둠이 마치 그 자체로 실재하는 성질인 양, 그의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음울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 어둠은 도덕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모든 대상을 집어삼킬 듯 번져 나갔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었다.

어서가의 주인과 단둘이 보내며 그 엄숙한 시간들을 견뎌냈던 기억은 평생 내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나를 어떤 연구와 활동에 몰두하게 했는지, 혹은 어떤 길로 이끌었는지 그 정확한 성격을 설명하려 한다 해도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격앙되고 심하게 뒤틀린 그의 관념이 모든 것에 유황빛 광채를 덧씌웠기 때문이다. 그가 즉흥적으로 읊조리던 긴 애가(哀歌)는 영원히 내 귓가에 쟁쟁할 것이다. 여러 기억 중에서도, 폰 베버의 마지막 왈츠 곡조를 기이하게 왜곡하고 확장하여 연주하던 모습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다.

그의 정교한 상상력이 머물던 그림들 또한 마찬가지다. 그는 그림을 한 획씩 더해가며 기묘한 형상들을 만들어냈는데, 나는 그 형상들이 왜 두려운지조차 알지 못한 채 전율하며 바라보았다. 지금도 눈앞에 선연히 떠오르는 그 그림들로부터, 단순히 글로 옮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무언가를 끌어내려 애써보아도 결국 헛수고일 뿐이다. 그는 구도의 지극히 단순하고도 노골적인 면모로 나의 주의를 사로잡고 압도했다. 만약 인간이 어떤 관념을 화폭에 그려낼 수 있다면, 그 주인공은 바로 로더릭 어서였을 것이다. 적어도 당시의 상황 속에 놓여 있던 나에게는

말이다. 그 우울증 환자가 캔버스 위에 쏟아낸 순수한 추상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경외감은 참기 힘들 정도였다. 푸젤리의 그림들이 분명 화려하고 생생할지언정, 그 꿈결 같은 환상 속에서는 결코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내 친구가 품었던 환상적인 구상 중 하나를 말해보려 한다. 그 구상은 추상의 정신을 그리 엄격하게 띠지 않았기에, 비록 희미하게나마 글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보여준 작은 그림에는 끝없이 길고 직사각형으로 뻗은 거대한 지하 묘실 혹은 터널의 내부가 그려져 있었다. 벽은 낮았고, 매끄러운 흰색이었으며, 아무런 무늬나 장식도 없이 매끈하게 이어져 있었다. 그림 속 몇몇 세부적인 요소들은 이 공간이 지표면에서 아주 깊은 곳에 파 내려간 곳이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그 광활한 공간 어디에서도 출구는 보이지 않았고, 햇불이나 다른 인공적인 광원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빛줄기가 공간 전체를 휘감으며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은 기괴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찬란함으로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방금 나는 청각 신경의 병적인 상태에 대해 언급했다. 그 증상 때문에 그는 현악기의 특정 음색을 제외한 모든 음악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 그가 기타 연주에만 국한하여 연주 범위를 좁혔던 점이, 그의 연주가 지닌 기이한 성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즉흥 연주에서 보여준 열정적인 기교까지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가 연주한 광기 어린 환상곡의 선율과 가사—그는

운율을 맞춘 즉흥 시를 곁들이며 연주하곤 했다—에는, 내가 앞서 언급했던 특유의 정신적 집중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그 집중력은 극도의 인위적인 흥분이 고조되는 특정한 순간에만 관찰되는 것이었다.

나는 이 광시곡 중 하나의 가사를 아주 쉽게 기억해 냈다. 아마도 그 곡이 내게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이유는, 그 곡의 이면에 흐르는 신비롭고 암시적인 의미 속에서 어서가 자신의 고결한 이성이 왕좌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온전히 자각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유령이 나오는 궁전"이라는 제목의 그 시 구절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다음과 같았다.

I. 선한 천사들이 머무는, 우리 계곡 중 가장 푸르른 곳에, 한때 아름답고 장엄한 궁전이 있었다. 눈부시게 빛나는 궁전이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고(思考)의 군주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 그 궁전은 그 곳에 우뚝 서 있었다! 그 어떤 천사도 이토록 아름다운 형상 위로 날갯짓을 펼친 적이 없으리라.